

남원 '냉동밥' 전국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남원시·풀무원 식품·남원농협·지엠에프 공동투자
노암농공단지 제조공장서 생산 대형마트 등에 납품

남원쌀로 지은 '냉동밥'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풀무원식품(주)는 (주)지엠에프와 함께 남원 노암농공단지 에 냉동밥 제조공장을 공동 투자해 남원쌀로 냉동밥을 생산하고 있다. 남원시와 풀무원식품(주), 남원농협, (주)지엠에프는 지난해 2월 협부협약(MOU)을 맺고 상생협력을 통한 식품산업 선진화와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풀무원식품(주)가 6월말까지 남원쌀로 생산해 전국 대형마트와 유통점에 공급한 냉동밥은 모두 160만 봉으로 여기에 사용된 쌀은 250t에 이른다. 또 풀무원식품은 최근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HMR)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남원공장을 냉동밥 전진기지로 활

용, 다양한 간편식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신제품이 출시되면 연간 생산량은 현재의 2.5배로 증가해 남원쌀이 매월 60t 이상 소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풀무원식품(주)와 공동 투자한 (주)지엠에프도 가정간편식에 관심이 큰 러시아 등 해외시장에 문을 두드리 해외바이어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자사브랜드 '올그루' 상표로 수출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청정 남원에서 생산된 맛 좋은 쌀로 지은 냉동밥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어 기쁘다"며 "풀무원식품 냉동밥이 기업과 농업이 함께 발전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69억여원을 들여 중



남원 노암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지엠에프가 남원쌀로 지은 냉동밥을 생산해 전국 대형마트와 유통점에 공급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산위주의 농업정책을 탈피해 소비자가 원하는 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남원 대표 공동브랜드 쌀인 남원참미 재배면적을 347ha로 늘리고, 육묘에서

수확까지 철저한 품질과 전면적 GAP인증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수도권 시민들에 강천산 등 '순창군 알리기' 경기도 판교 현대백화점 내 홍보판매점 개설

순창군이 최근 경기도 판교 현대백화점 교보문구 내 홍보판매점을 개설하고 지역 알리기에 나섰다.<사진>

순창군에 따르면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순창을 알리기 위한 대책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찾는 서점을 선정했다.

특히 서점 중에서도 전국 체인망을 보유한 교보문고를 선택해 판교지점을 시작으로 점차 지점을 넓혀 나가도록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홍보창구가 위치한 곳이 백화점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이다 보니 백화점 이용객부터 교보문고 사용자 등 다수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어 순창군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군은 이번 창구를 개설하는데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강천산 홍보에 이어 발효커피 등 지역 문화상품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발효커피는 순창군이 발효미생물 기술을 활용해 오랜 연구 끝에 향과 풍미를 더욱 진하게 해 소비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상품이다.

이외에도 순창만의 생활자기인 순창 '우슴자기'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순창에서 생산하는 더치커피 등의 판매도 이어가며 도시민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군산사랑상품권' 9월중 모바일 출시

가맹점 3800개소 등록...수수료 부담 없어 인기

'군산사랑상품권'이 오는 9월 중 모바일 출시를 앞두고 손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종이류 상품권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인 가운데 모바일 가맹점 등록대상 8399개소 가운데 3800(45%)개소가 등록했다.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은 안정성과 보안성에 강한 한국조폐공사에서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으며, 성남, 시흥에 이어 3번째로 선보이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기존에 은행을 방문해야만 살 수 있는 불편함이나 휴대 불편, 분실 우려 등 종이 상품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1인당 70만원 한도 내에서 살 수 있으며, 발행 규모는 1000억원으로 활용율은 동일하게 10%다.

해당 상품권은 15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8월1일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 '지역상품권 Chad'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후 가상계좌 입금이나 본인 계좌 연결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산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찍으면 결제된다.

가맹점주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결제 금액이 자동 정산돼 환급통장으로 입금



되며, 가맹점주가 없는 경우 점원들도 점원등록을 통해 결제가 가능한 편리한 시스템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화폐수단으로 신용카드는 결제 시 항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산업·고용위기지역 대응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는 지난해 9월3 최초로 도입돼 현재까지 총 3510억원(2018년 910억, 2019년 2600억)여치가 발행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시민희망연대, 가평서 '역량강화 워크숍'

정읍시민희망연대가 지난 6일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모니터링기법'이란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의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정읍시민희망연대는 워크숍을 마치고 육을 마치고 남양주시의정감사단과 자매결연 협약<사진>도 체결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제2차 익산문화재 야행' 개최 준비작업 돌입

익산시가 '제2차 익산문화재 야행'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10월 4일 열리는 문화재 야행을 위한 자문회의를 최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문화예술단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지난 4월 개최된 1차 야행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했다.

또 10월 진행 예정인 2차 문화재 야행 성공개최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야행 공모사업 추진 등에 대한 기획 등을 논의

했다. 자문회의에서는 지역민 참여 농촌형 야행 프로그램 발굴·운영, 야간경관 강화·체험 공간 조성, 청년층 참여 확대, 지역특산물 활용 야식 및 특산물 판매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2차 야행은 익산시가 보유한 문화재의 자부심과 가치를 바로 알리고 방문객들이 다양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고창 선운사 차밭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관광객 위해 산책길 조성 등...명품 차 생산 연구 개발도

뛰어난 차 맛으로 유명한 고창군 선운사의 차밭이 관광객을 위한 힐링 공간이자 명품 차 생산기지로 거듭난다.

고창군과 선운사, 생활문화기업 LF는 지난 10일 선운사 앞의 녹차밭을 문화관광산업에 활용하기로 협약했다.<사진>

고창군과 LF는 먼저 관광객이 차밭을 거닐며 주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만㎡에 이르는 녹차밭을 서둘러 복원하기로 했다.

찾음을 직접 따서 뒤는 뒤에 차를 만들고 마셔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 다.

LF는 이를 위해 차 생산 시설과 시음장, 휴게실, 화장실 등을 만들기로 했다. LF는 선운사 녹차를 명품 차로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도 진행한다.

선운사 일대는 자생 차나무의 북방한계선으로, 기후 조건 등이 알맞아 차 맛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